

湖上夢

호 상 몽
上下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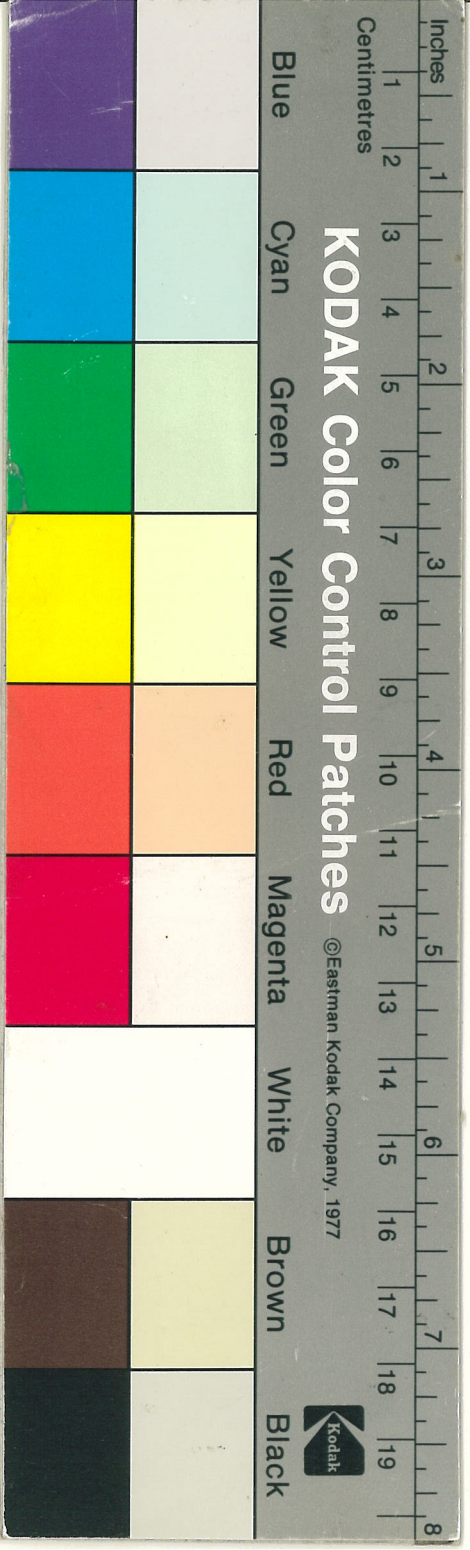


1924

43.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호 상 몽
湖 上 夢

上 上

손유근저
孫洙根著

登錄 番號	3168
分類 番號	
圖書 番號	

동명호철벽리저문가을기닌하랄에바람은쇼쇼고물은창창하야하랄노더부러한
빗치라창오산저문구름과소상강아참비에형인커긔의단장소흔과청련만리울고가
난괴력기어너곳을차자가며평수장림의숨히쇠스과람하난잔나비늪를위호노쇼인
적긔의심사자아너난듯연과강상일어부가빅년성이려빅구라팔월구월노화빅흔데
부가범턱으로막런셔디호야도람모북단일적에사풍계우불수귀로다부춘산하엄자
름은오월양구제격이요회음성하한신는표모은반상사라일간낙일이서산에걸니여
난티촌어환류록양변호미취홍이도호야종일위지쇼여로범々종류떠나가며겨세
이가지호니창낭지슈청혜어든락아령이요창낭지슈락혜어든락아죽이라이늪일곡
산슈록호니숨공불환차강산이로다월식은고호호고만뢰구적흔티션두에의지호니
홀년이장류에숨을비러몸이나비되여두날기를떨치고바람을죽죽망々히한곳에가
니셔호디방이분명호다

셔호—부셔에잇스니슈회빅나라산천이슈려호고물석이변화호야즈당리리로런하
유상승쳐라호니셔호심경은알평호추월, 쇼제춘회, 단교잔설, 뇌봉낙조, 남명호

호 상 몽

중, 국원풍하, 화향판어, 류낭문인, 습담인월, 양봉삽운, 이라령은련죽중조보
 셔지사와옥용호포련용령추석옥지등에간슈그옥하며임목이승을호고천석이청결
 하며봉만이괴이호니진쇼위련하제일강산금릉준당이라총하더라향주성셔용금문
 외에잇난하유에아달하성에명은신이니일세인물문장이출유초군하야풍조를글니
 호고임영을철승호야물이사람에경복총찬한바되앗더라씨난맛참 디명홍무철년
 이라황제신승문무호시며제원겨운하사흔일화하호시니봄이우공에도라오고사람
 이요련에잇셔겨양가를강구에불으고리산에입셔호와공덕들의우시니리세는갑인
 춘삼월망간이라만들이화창호고벽화난만하야중조가봄을을니미차시하신이셔당
 에셔글을의다가출흥을못이기여시랑쥬리로완하이무림산닝천정을향하야갈셔디
 자산에자하거두우고습풍이련월곡에부난지라과복동파에용비봉무지시를외이며
 형하더니출연일쌍청조가선명한금쪽을물고셔옥동으로나와노상에떨어트리고표
 년이날나가거날성이심중에의아불이호야집어낭중에두고닝천정에당도하야쇼요
 빙회하다가동파닝천정시靈恩寺前天竺後、兩間春淙一鶯靈지켜를쾌히업조리고
 남북양안과밋호상제봉과모되사찰을바라보니담하한벽운은돌를쉴러이러나며총
 하한고봉은반공에소사잇난지라뇌봉랍하양안평호을구버림하니금닌은파간에도

령은사전련축후 양간춘淙一鶯靈지켜를쾌히업조리고

약하고춘조난수림간으로왕니하난디성이쥬이반감에시심이도하야사괴사좌하
 다가시일편을이루워정각에티자로써니그시에왈

冷泉亭下有湖水

닝천정알이호슈잇스니

湖水蒼々一色天

호슈창하야하달로한빛치로다

風岸石鍾靈恩外

풍안에석중은령은박기요

霞林木笛大慈前

하림에목적은디자압하라

與人不得金屏射

러인에금병에쏘난길기달이지아니호고

得婦何勞玉子傳

득부에웃지옥즈에전하난길수고로이할가

靑鳥一雙何事翻

청조일쌍이무순일노랄이했노

男兒到此意茫然

남아이예일르미쓰시망연호도다

서필에남음수형호고인하야도라을셔석옥동에지나미전계에양류난료하호후원
 에도화난작하디곡임은황금을던져왕니하며사로는벽옥를날니여천근하난지라
 록음슈양중으로화투각이을우차하야중쇼에소사잇고괴화요초와별금이슈은
 불가승슈요또호슈간괴루가소디상에림하야난디옥난듀동은령남산지흥일호고요
 현화염은비북항지벽운이라명월과야랑류가튼이팔미녀우슈에단봉필를잡고반썸
 옥난에의지하야현산락도를무한이바라니춘장장미가아참니슬을먹음은듯동각미

호 상 몽

화가 밤눈을 투기 하난 듯 성이 심신이 황홀하야 주저 주저 하며 암암이 바라보니 장차 나가 고자하나 능히 못하 고 물너 가고자하나 참아 못하더니 아이요 그 미녀 성에 계시 하난 묘양을 보고 루로 들어가니 성이 입지슈경에 무가늌 하라 공々 연이 커하야 여실 좌우슈 러라 그 미녀 난 주슈가 지녀 오셔 옥동거부만 석강 벽운에 너니 유명은 춘산홍이라 티 사에 덕과 서시에 티를 겸하야 능동시 서하 고 벽가 제어를 무불동지하야 춘시 추례에 문 장 필법이 리 태벽 왕희지에 너리 지아니 하미 그 부친 벽운과 그 모 등 씨가 이 지 중 지 하며 여금여옥하야 후원소지상과 루에 두고 시셔를 공부하 고 필법을 익기게 하야 쇼비홍년 으로서 위하게 하미 고 사방에 광구하야 춘산홍에 비 필을 구할 시 동지셔 지남지 북지하 여도 맛당한 곳을 엿지 못하야 일로 하야 금류야 우심이 충々 하더라 그 잇흔 날 강벽운이 동빈셔 봉과 산우야 깃 으로서 더 불어가 듀미 효을 작만하 며 풍류를 준비하야 닝천정 돛리 를 지을 시 도기 추윤이 무림 산하에 연하야 닝천정에 단회하니 동산극 북히 준이라 장기 를 닦기 하 고 쏘 난 결 맞치니 투형여고하 며 티 월여죄라 괴류 괴착하 며 중빈이 현화려니 벽운이 덩상에 당송고인에서와 강호 유적 지사를 보미 만이 현관을 그 위의 부처여난 티 전에 읊난 일슈시을 티즈로 동양우의 썬난 지라 눈들 어즈 세히 보니 운격이 화창하 고 사어미 묘하야 시체 난즈 첨이 요 필법은 우군이 라 차 탄 불이 하야 왈수가 지즈 완티 문장 필묵이 이 갖튼 고아가 여식이 년금이 팔의 문 필리 이 사람 만하 지 못하 건 만 일 지기 저의

씩를 중하 지 못하 여 씨니 육십 노옹이 실하에 달은즈 식읍고이 장차 엿지 하 단 말 가 하 며 장 탄 일 성에 당 각를 동명훈 티 좌우 중빈이 각々 스사로 위로하 여 왈 강 주금 일가 유에 엿 지이 갖치비 참한 말을 너리 요던하에 봉비 황수하 고 용마 출죽 장수 잇스 먼자 연한이 차 라이 제강 주령이 주옥에 갑과 난해에 형이 잇시나 보던지 하에 엿지 옥윤에 어절미 읊시 리 요사히 팔방에 광구합이 가 하 고 장 탄 영우 합은 가 치아니 하 도 다 한 티 강 주강 잉하야 각비 각 회하 고 빈 깃 으로서 한 가지 단락 하 더니 이이 요 셔양이 저 산하 고 인영이 살 난 한 지 라이 예 중빈 으로서 한 가지 커가 하야 닝당 으로서 들어 가 부인 등 씨와 동좌하야 춘산홍 들 불 러 등을 열우만 저 왈이 지라 아가 지녀 아여 묘제라 아가 지녀 아여 네에 비 필을 광구하 지 우금슈년 이 로 되저 한 사 랫을 보 지 못하 였 더니 금일 닝천정에 일수시을 보미 겨운 사 조가 심히 화창하 니 너 난 맛당이 들을 지 여 다 하 고 외이 여 들 니 고 다 시 왈 락 귀시의 가 심 이 괴이 하 도 다 청조 일쌍은 아가 에 잇난 바라 그 의 사 웃지 함 잇고 하 결 늘 춘산홍은 다 만 수슈공 총할 다름이 요 부인 왈 작 일에 청조가 춘산홍에 웃 말으 고 난 난 거를 물고 가 더니 쪽금 잇다 가 거져 오니 이상한 일 이 로 소이다 이 길 조이 잇가 흥 조이 잇가 아 지 못 할 바 로 소 오니 가 옹은 익기 성 각하 압 소셔 강 주 청 필에 왈 청 조는 번시 요 지셔 왕모가 한 무 제에 계 술 보 니 던 시라 아가 에 온 지 수 벽년 이 로 되 길 조가 만코 흥 조 난 읊 시 니 선 천 혼인 할 씨 에 청 조 전 신하 고 내 혼인 시 에 도 청 조 전 신하 였 씨 며 또 구셔 하 난 차 또 혼이 갖치 길 조이

스니이난청조전신홀이라그전신홀사람은엇더홀사람인고반다시닝전정에글부쳐
조로다맛당히그사람을구하여괴직을삼을지여다년이나그성명을아지못하니엇지
하면조홀고하며출산홀을명하여초쇼로가라하교외당에나와홀로상전일하에명촉
을발키고숨국지를보다가승탄에문장을차탄하야서상괴일편보고인하야취침홀엇
더니일도사익학을타고일쪽션화간디를녀노의며왈강옹이구일잉하에사적을아
시나잇가하며가거늘바다보니수일후가인즈녀지사가유하리라분명이써거늘괴이
하교괴상하야늘니쳐니서성에달이지고동산에두견이숨히우니밤은곳숨경이라남
가일몽분명하다의심이만단하야복조의계문의하니복조희패하여왈가인즈녀사
을합하야본죽엇지하짜조홀호짜가되니년즉하호이짜라무어시조홀리요이패디불
길하다하거늘강주총파에불열하야왈몽조이갓차불길하니엇지할고하며근심으로
지니더니령은사에월당이라하는도승이잇스니식견이고상하교도술리잇슴으로사
람에길흥화복을판단하더니전일에강주에계법당중수차로시주만금을권선홀고로
주직이되여간하이단이다니맛참이셔오난지라강주디희하야영점하교설화간디을
녀노의며문왈자야몽중에이간디을드려나자제히아지못하야근심하던차디사
육되이림하오미다형하도다수고을익기지말고자제히알리키여주쇼셔디사본지슈
경에왈빈되무어설하니요만합하야보온죽하호이찌가되니반다시하씨에계디호지

사가잇스리이다강주듯고희식이만면하여왈디사도아시난바어니와방금구셔하난
차에이갓은몽조잇셔복조에문의하니하호이찌가되니엇지조흔일리이스리요하야
늘일로하야금근심이죽지아니하더니디사에말슴을들으니희심이과망하도다디사
왈그말도괴이치아니하도다수일지년에장차알바잇슬거신니부디조심하와하씨의
계연분을증하쇼셔홀디강주응락하교황금릭근과처단심필을주워보니고니당에들
어가등씨부인달여월당디사하던전후슈말을일하리설화하니부인이갑부멸마지아
니하디라각설하성이키가이후로셔옥동후원당쇼미녀를싱각하야공연이슴시출망
하디시셔가눈의보이지아니하교가슴이답하두눈이감하야참싸참싸참싸못하교
그잇흔날닝천당을차자갈시셔옥동에당도하디한번후원쇼디상괴루를바라보니물
식은여구하나춘일이점하화창하야초복금슈가넷날에서비나되하미녀는보지못하
고다만인가연무분하한지라점하시디길을차자후원셔장을넘어슈목시이로의지하
야그동정을살피더니마참괴루중으로사람의소리들니더니전에보단하미녀가엇더
한쇼녀을달리고길을인도하야후원으로올나오거날싱이급히총립시이로온신하교
엿보더니일쌍미녀습청답복하야뜻을커경하교물을상주워반환단락하더니일미녀
불너왈홍년아홍년아씨난맛참모춘삼월이라만물이화창하디가이씨사람이엇지업
영할날리옵시리요너난곳가셔디필복를가제오라하니홍년이치마을것고집으로녀

리여가거날춘산흥이홀로괴화요초중에안저시사택々호모양이라성이화림간으로
 서나오며크게기침한번을하며화초중으로가니춘산흥이되경실석호야급히너여가
 다가흥년을맞나무술말을미々호며가거늘성이하릴읍셔완보로흥호야춘산흥안저
 던곳에가니미인은읍시나형취오히려나만난지라하형초복이일신에편만호야수보
 를형호미경유리한작이잇난지라천금보비을은더시급히주워이리저리보다가발
 에신어본즉발은크고신은즉어신씨못할지라야이요흥년이북편죽비를떨고후원으
 로올나오거날성이급히하초로몸을가리우고그동정을살피보니춘산흥안저던곳에
 와셔차지며사방을살피보고중얼중얼할다름이라그제야성이여성호야불너왈이리
 오나라이리오라너난엇더한녀조완티찾난바는무술물건잇고흥년이살품살품오다
 가발연자식알공조난니쉬완티나무딕후원담을넘어오면무술일이며남에찬난바를
 문난거션웃지민고필연유으신모양이오니일즉히임조의게돌니여보느시고급히
 나가시와형영을을범호시지마압소서성이왈나난항주성셔용금문의에사난하신이
 라무림산내천등을차자가다가후원물석이절승호고화초난만호야켜경할야왔더니
 경유리한짜을은더씨나그임조에확실호쇼유을알고림조를본연후에상당이줄거시
 요형영을은고사호고주는슈슈료로니쇼청을들으면곳니여주고글렸치아니호면상
 당이줄수가읍실썬외라확실이림조가잇다호야도차질필리가업다호니흥년이한참

무슨싱각하다가상글상글호며왈련하지물이물각유주어날유인이방금찬난디주고
 아니주난거시도시불가한경우오며청이무순청이오며수슈료로말호오면물건림조
 에마한이지먼저말숨한거시무례한말습이외다성이미쇼호며신들들어보이며이
 거시네의쇼유냐한디흥년이신을보고급히고왈이신은우리딕규중쇼저의신이온디
 금일후원에놀너오시다가일은바되얏사오니속히돌니여보니쇼셔만약지체하시고
 룡담으로싱강호시다가누설되온즉피차불이할거시요공조또호옛적손성이양두사
 를보고결단치못호오며증조구미호를만나익연한일리잇셔후회가마지아니호리
 니앙망공조난급히싱각호압쇼셔성이타쇼왈합화봉접이요줄져흥안이라썬본나비
 와물본길어기그저갈일편여업다니가여기안이왔신즉하릴업거니와우연이여기와
 셔경유리를어더스니이난반다시연분이라너난맛당이흥낭에일을형호야니의빅년
 가약을일차아니호게하라호며곳붓설날니여일슈지시를써주며왈네딕쇼저의승명
 은무어인고호디흥년이척왈나무딕쇼제에승명은남조의알비아니라호며또흥낭의
 일은천만부당호은지라두번마압쇼셔호고곳글을바다보니그글에하여씨되

蜜口喧春好信傳

버리입으로봄을짓거여조흔신을전호니

爲花評品嫁東風

꽃에품을평논한바되여동풍에서집갓도다

香鬚粘得飛英去

향기슈염으로나난꽃썬리를점쳐어더가니

疑是纏頭利市紅 의심컨디이 1 존두리시에 불금이로다

하야 거날실을 보고 미소왈 이글을 공조에서 지으신 바은익가져난번시촌인이라 일즉
글을 비우지 못하압고 쇼저를 되셔디 강던고디 비를 아나 이다 싱왈 나난과히 겸양치말
라 이글은 니가 지은바아니라 유후촌에 봉낭시라 나난별노히싱각지말고 봉낭시를 모
범하야 성사할즉후이네에 공를 갑흐리라 혼년이니 신탁지하디 공자의 인물풍도
와문장필법이 쇼저와 상적하며 또 혼승이하셔라 하디 강옹에 말슴을싱각하야 공손이
고왈 우리딴강주쇼저에 비필를 광구하온 지우금슈년이로되 맛당흔곳이 읍사와 증흔
곳이 읍사오니 북망공조는 딴으로돌라가셔 혼흔쇼저승은강이요명은 춘산흔이라
총흔고그부강만석이라 총하나 이다 싱이 낭쇼왈 춘산흔은 곳헛이라 춘풍에 분하흔봉
접이 헛철보고 웃지달은디로가며 웃시라시를 바라리요 나난속기 천만두션하하하
은근흔정를보이니 혼년이 답왈 공조이 갓차할진디과 무다언하쇼저 맛당이 일비지역
를지으리다 싱이 디열하야 정주리를니여 주며 곳금누사 일편을지여 주며 왈 어불성설
하고자 불성형하얏스나네의 쇼저에게들리고자 제히도흔말로하야 극역두션하야립
시낭피되지아니제하야라 혼년이 작별하고루로돌아가 신평금누사를쇼저에게들리
오니 쇼저의아하야 못지아니하고바다보니 그사에왈



몽각도원입

개인간곡취별도

운거홍무

일편부운범유슈

입사동

夢覺桃源入

怪人間

曲吹別調

로다運歸洪武하미

一片浮雲泛流水로다廿四東

풍오가

산도로슈영슈옥

벽면서정차개고

회방원서

향심림숙

향심림숙

風御駕하니

算到了誰榮誰辱

고白面書生差稽古하

고會芳園序하

며向深林宿하

조단봉

퇴향하

디명일월

도림디

축동

풍만산조작

비탁별목

비탁별목

嘯丹鳳하

며椎黃鶴이로다

○大明日月照臨地에

逐東風萬山鳥雀飛擇別木이로다

前度紅娘今尙在하

니不憂看花之福이로

도但鶯柳鶯芹盈目이로

도羊腓光陰容易

過하

파

탄부성디족하지족

시축이만상속

단잉류연근영목

양갑광음용이

양갑광음용이

過하

면嘆浮生待足何時足

고詩逐履謾相屬하

로라

남필에안상에든지

며홍년을썩지

저왈네엇지이

러글을바다왔난요신을찾지못할

지연정남자에글을

바탄말인나하

고디척흔디

홍년이조흔말로위열하야왈쇼저난

다행이과척지마시

압소서하

며또흔전의

주면바유후촌에봉낭시를니이여보이니소

저니심양지하

매문장필법이

굉디하고또흔

잠간그사람에풍치를보매셔질이구미하

야장찾엇지할줄을

아지못할지

라인하

여정숙흔말로홍년을일너왈귀중쳐자로외인

남자에글을바다

보난거시에

절에불가하

나남에글을바다보고회답지아니하면또흔

인사에불가하

니난니글을

그남조에게

전하고차후난다시이갓흔글즈를바다오지

말나하

고곳글을

지여회답하

니홍년이관그의양하고허우셔왈아유가빈에이영금

석호리라하

니쇼저엄금

디척왈이

무슴말인고홍년이합쇼하며글을가지고후원으로

을나가하공즈를손으로불으거날이썩공즈고되고되기달리다가급히흥년에손을잡
고와악가상약호일이웃지되얏노호흥년이반쇼반연왕폐일언하고쇼저에글를보쇼
셔너희외금호난모양이오니어셔보쇼셔성이희심이깁가일층더하야급히페보니름
과사분명하다

약유인해 파지중

절양유해 처부용

진요환해 경귀피

장명

若有入兮

波之中

이로다

拆楊柳兮

採芙蓉

이로다

振瑤環兮

玳瑁

의면々해

약경용

신교々해

여잔용

경진심해

나

兮玲瓏

이로다

衣翩々兮

若驚鴻

이로다

身矯々兮

如潛龍

말

사일도해

방용

전동입해

서부동

강가우해

불가종

襪

이요

斜日照兮

芳容

이로다

塞獨立兮

西復東

然而

長往

이여

御冷冷々

之輕風

이여다

然而

年

이장왕

의영々지정풍

然而

長往

이여

御冷冷々

之輕風

이여다

然而

하여거날흥년에손을잡고와쇼저에공부이가치광창하단말가장호도다그사의를보
니일리와히가될듯하니이장차웃지하단말이나익기보면마암은잇시나쫓지못한다
하엿씨니너난나를위하야양척을너라금석에형에호도룩할지여다익고익고나죽게
다흥년이년화에걸름을형하며부용에우숨을지며와공즈난엇지이가치급하시니익
가갈별리난못갈어먹게다글리지마시오하더니다시중용은근히와총림사이에은신
날고기시면자연할도리가잇슬거시니촌녀어너어외에호작구쳐하야유후촌에봉남

시를모변하야흥남에일을흥년이형하오리니일후에부티부티공을잇지말으쇼셔하
며가々히웃난지라성이희々렬々하야흥년에등을밀며손목을잡어보니고총림간으
로들어가니라이썩춘산흥이흥년을보니고니심으로암々히성각하니분명호흥년에
일리라차장니하오이장차웃지하고빅절리사지하고만회이탁지하여도그문장을보
미기々히관주요절々리비점이라향々에부용에말숨이닝천영시가련하제일문장이
라하시합더니이남즈에금누사일편을보미역시일반이로도보고총찬하며총찬하고
보더니흥년이들어오난지라쇼저련연이작언왕네웃지하야이가치치체하얏난요하
며괴상이엄々하고리도진중흔지라흥년이할일업셔둔사를부쳐와소비그공자로더
부러글을주고말하던차에강주풍경을담하사외원에노으시다가보시고곳오셔々그
공즈를붓뜰고최근하시오미일이발설되얏사오니이일을장차웃지하오릿가쇼비죽
고보오면쇼저웃지코저하시나익가하며눈물리방々하야의상을적시운니쇼저총파
에안식이홀연이변하며기가빅키여능이말를못하고오렐하여왈웃지말고이웃지호
일인냐익고々々익고야나가죽고자한들저에게회답하여쓰니죽어도발명할일바
이읍고사자하니부용이발셔아서시니저에게빅년가약을매져유나세상사람이목과
리우워웃지하나구차투싱하잔말가니약하오니약하오인간습자니약하오눈물지여
쳐창하니연々한방초구진비의저진듯섬々호호월리혹운에갈린듯흥년아흥년아일

이 이디경되얏시니 웃지 말고 웃지 말고 너는 나를 위하여 퇴척을 지어 다 하 며 흥겨
이 여 열 하야 말을 리루지 못하 난지라 흥년이 황공하야 고왈 쇼저 난 정신을 진정하와 제
의 말씀들을 으소서 사이 지차하야 씨니 진퇴유곡이라 북망소저는 부모림세사 실죽고
하와 하공조로 씨백년지약을 매지시고 거의 누명을 면하게 하소서 소저 청과에 다만 유
체할 다름이라 흥년이 다시 고왈 그공조 난 황유성셔 용금외에 사는 승은 하 씨 요명은 신
이라 문벌과 인물문장이 상적하오니 소저 난 심々 사지하옵소서 소저 왈 고사시 하라 향
조부옹이 닝천명 놀이를 지을 씨시 일편를 위우시고 밍세코그시 지은 사람을 구하야 궤
칙을 삼을 지여 다 하 시니 모천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조 일쌍이 닝지의 하 고 남난 폭을 물
고 갖다가 거저 왔도드 하 시니 하공조 닝천명시 지은 사람이 아니면 부모에 명을 어기웁
이라 이 장차 엇지 할고 흥년이 충지 양구에 왈 황공무디 오나 악가 말씀하온바는 회언이
라 용셔 하 시오 하 며 길리 우습한 마당을 지으니 소저 그제야 새 닳고 다시 노왈 회언으로
씨니에 심잡을 이 갖치 놀니 우며 하물며 혼인은 인륜티사라 그 죄가 불소하니 용셔치 못
할바로 흥년 디 흥년이 단정이 될어 안조고 왕불복빅커 하옵고 흥용하와 존심을 노촉하얏
사오니 죄사 무석이 오나 원컨디 용셔하압소서 글어하오니 소저 승인에 천도를 씨종시
듯지 아니하 시오면 디화가 장초 밍칠 거시니 그역난 처하온바로 소이다 쇼저 흥년에 수
단에 써저 노괴 난홀디에 간디 읍고 왈 디화가 무슴디 환고 흥년이 텨년 디 왈 하공조 쇼저

에게 불취하오면 죽고 말지라 하오니 이또 흥년 엇지 하오리 악가 하공조는 그딕무매도
이오이 팔청춘이라 만약 죽고 보오면 필시 구천에 돌라가 원커가 될 거시니 쇼저의 편
를 마사 하야 만사 불길하올 거시니 화막디 어차로 쇼이다 또 흥년 조의 참아 못할가 하노
이다 쇼저 디로 하야 디 절왈도 시네의 작간이라 깡막타 언하라 하 며 휘지가지하니 흥년
이 작간이 짜의 반심이 디 발하야 왈 쇼저 세져 흥년으로 작간하하 시오니 밍세코 말씀
아니하올 거시나 만약 하공조 죽은 후에 후회하하 시지 마압소서 하 며 하하 이나 가니 쇼
저 성각하디도 시여의 치못한지라 이에 창식이로 보니 흥년이 텨년 이후 원쇼죽비를 열
고 슈림간으로 향하 난지라 가만々々 이 쓸아가 바라보니 흥년이 화초서이로 가셔 한마
디 쇼리로는 만히 불으니 하냥이나 오난 디 심오야 명월리 동산에도 다오난 듯슴 십년 화
두가 합포에도 다오난 듯 흥년으로 슈작이 분々 하디 음성이 금를 파하 고 형용이 옥를 갈
음 갖튼지라 사람으로 관광하디 참아 떠나지 못할지라 쇼경에 디 쇼일장하 며 금냥으로
셔 엇더한 물건을 닝쥬며 흥년에 커에 디이고 두어마디 하 고 두어마디를 하니 흥년이 상
글々우슈며 하냥에 커에 디이고 또 흥년 무슴 말을 장황이 하다가 막비연분으로 쇼이다
하며 은근이 작별하 고 회정하 난지라 급히 침쇼로 도라와기 달리더니 순식간에 흥년이
들어와 엽해안지며 화석이 만면하 나 쇼저 왈 너난 무슴일로 씨화괴 만면하오 흥년이
디 왈 쇼비—근노하야 쇼저의 텨년 성연분을 쓴채 안케하오미 쇼저 되리여 작간하하 하오

니 심히 원통하다 하며 상티속으로 었더흔 금쪽 하나를 너여 노으니 쇼저 왈 무슴물결인
고 흥년 왈 청조전신흔 금쪽이 요하냥은 곳 닝 천명글지은 공조라 지금도 허락지 아니
을리가 쇼저는 번시 승품이 활달하야 의여 남조라 그제야 주식이 읍시 왈이 갓고 보면 부
모림세 맛당이 품하야 벌년가 약을 중하리라 흥년이 우슴을 지며 왈 청조전신하 고경주
리 중덕하야 흥년이 벌리되고 나 비되여 셋설 동풍에 회롱하야 하냥을 후원에 불너 씨니
막비연분이 라글어나 하냥이 결단코 금석에 쇼저를 보고 말니라 하니 차장니 하오쇼저
왈 불가々々 다 부모제고 하지 아니하 고 었지이 갓치 무예흔 검수의 형실을 하리요너
난가셔 곳이 말로써 고하야 집에 도라가 작미 통혼하 고 성에 할 줄로 알고 아직은 공부나
근々히 하라 고 하야 라 흥년이 총영하 고 하냥에게 가 쇼저 말되로 전하니 (.....) 이 하
빅조는 당국 명령에 의하야 사제함 (.....) 승경에 가 만니 장원을 넘어 여차々하 쇼저
싱이 회불자승하야 우도마약이라 흥년이 작별하고 도라가 쇼저의게 고하되 하냥이 겁
분빗철가지고 키가 하엿다 하니 쇼저 듯고 자기마암을 밀우워고 지듯고 티연무심하디
라 경지 요석양을 보니 고 쇼월를 마저 흥년이 가 만히 석반을 싸하싱에 게보니 고 쇼저로
더 부러 작안할시 감언이 설로 위로도 하며 룡탁도 하니 쇼저 듯기 민망하야 고시수편을
외우미 밤이 이메 숨경이라 (.....) 이 하 빅조는 당국 명령에 의하야 사제함 (.....) 이
흥년이 금현을 골나 실음읍시 타니 쇼저 난용검이 와하야 들으나 이씨 하냥은 한곡도 두

곡도에 원장을 넘어 일보이보로 들으 가며 좌우 풍경을 구경하니 풀인즉 선수돈지속리
라 막언준도 방비진하쇼구 추상노에 도불변색하야 잇고 창간에 일조화룡을 걸어 씨니
룡안에 일쌍잉무시 잇서 사랍보고 능히 말하며 누후에 천년노목이 잇서 일쌍빅학출을
추고 알연이 길게 우니 화주 천년에 빅학이 돌아온듯가 만이 방중에 들어 가니 이씨 쇼저
는 참지 못하야 맛참 취침하야 난지라 (.....) 이 하 빅자는 당국 명령에 의하야 사제
함 (.....) 그 잇튼날 평명에 작별할시 리도령 춘형이 리별흔듯나저 흥년 숨인이 창연
한마음은 칙양할수 읍다 눈물로 관을 진난다 보고 눈물 눈물하고 보고 보고 지코 눈물
글여 참아 떠나지 못하난지라 (.....) 이 하 빅조는 당국에 사제함 (.....) 황주로 향
할시 일노옹이 청여장을 집고 완보로 계림간에 쇼요하다 가싱을 보고 왈 너 난웃더한사
람이며 거 주승명을 들으니 싱이 티왈 쇼조에 집은 하뉴성용금문외에 잇사오며 승명은
하신 이로소이다 노옹이 티희하야 왈과도 허급함이 읍거든니 집에 잠간 쉬이여감이 엿
더하쇼싱이 티희하야 왈 무림산 닝 천명물색이 심이 죽단 말을 듯고 오유하고 오난길이
압더니 노옹게 압셔이 갓치 관곡하시니 쉬이여 갈가 하나이다 노옹은 엿더흔 사람인지
아지 못할너라 싱이 노인을 싸라 심림벽계간으로 hing하야 한동구에 다々러 자세히 본즉
꽃석옥동이라 싱을익글고 흐티가으로드러가 고루에 안치고 왈이 집은 너의 집이라네

년금육십에 실행하에 일점혈육이 읊더니 말연에 일너를 두워 씨 되 형용이 과이 용쫓치아
 니 하고 제예가 심이 노둔치아니 하매 흥의 막심이 나일즉기 저의 비필을 종하지 못하야
 일로써 우민하더니 이제그디를 보니 용모심이 아름다운지라 나의 미거흔녀아을 부락
 고저하노니 군의가 엇더흔지듯 고저하노라 성이 비사하여 왈 우인을 이갓치 하언하
 나 감사무디 하오나 우흐로 부모가 계시오니 불고이 취난디 순이 아니면 능치아니하
 이다 노옹이 하예히갈오디그디의 말리을 토다 진쇼위현인 군조의 할비요나 갓튼산인
 야담에 밋칠비난아니라 그러하나 닝천등노리에 성각건디 받다시 지은바 잇슬거시니
 한 번듯기를 원하노라 성이 추양지숨에 전에 지은바 일슈시를 외이여 들닌디 노옹이 희
 불자승하야 왈 나키에 청조일쌍은 무슴 뜻이 노성이 금낭주는 일을 주달하니 노옹이 그
 제야성의 손을 잡고 등을 어르만저 왈 희제라 금일에 그디를 만나미여하날리 주신바로
 다하며 전일의 지난바를 일장설화하고 성을 머물너 관디하기를 마지아니하며 곳창두
 을 보너여 청혼하니 차시하성의 부모하신이 작출미커함을 근심하던츠에 석옥동거부
 강만석벽운집의 서일장서간이 왔난지라 그서근을 보니 신이 그집에잇서 청혼한일리
 라 부々상의 할석부인왕씨 왈 향츠에 들으니 그집귀수가 인물리 절등하며 문필리 겸비
 하야 심히 절등하노니 김무타언이라 허락할이 조홀듯하노이다 하유그부인에 말

과갓치 곳희답하야 허락하니 벽운이 보고 잇거하야 퇴일하야 성에하니 사월 초사일리
 라 하신과 춘산홍부々셔로디하니 진소위요 조숙너를 군조호구로다 벽운이 달은아달
 읊고 하신에집이 조곰부족한가닥으로 석옥동에잇기로 작정하더라 하신이 그밤의 후
 원쇼디상과루에 들어가니 물색이 전야에 비승한디 흥년이나 와영접하난지라 셔로여
 기를 연하야 방중에 들어가니 쇼저또흔이러나 맛거날 성이 쇼저에 온을 잡고 옥지환과
 난해편을 닌여보이니 슈청선와 추벽옥경이 괴합이여 부라상회상쇼하야 심이 혼확하
 니 정과의가여 금여옥이라 광음이여 류하야 성의나 이약관의 이르니 강낭과 혼년도
 역시 동경이라 잇세변방오랑캐난병장기를 닌이 고색가화하야 곡석이 풍등하니 띤즈
 인지를 퇴하사만과를 보이난지라 일々은 강낭이 성에게 고왈 장부출세하미 입신양명
 하야 현이 부모난장부에 맛당이 할비라 원컨디 낭군은 일직이 발정하와 조흔씨를 일치
 마소서 성이 낭에 말을 올허여이여 부모와 악장에 고하니 허락하시난지라 성이 강낭과
 흥년을 이별하코온안벽마도 춘풍으로 금릉을바라고가니 강낭이 동구슈리에나와온
 근이 말리읍시 눈물비가 실갓치 세々히의 상을 적시고 흥년도 또흔창을하기를마지아
 니하난지라 성이 말치직을더하지 못하코 말을 멈췄고셔々 흥년다려일너왈 너난아모
 조록강낭을외시고잇셔나의금의환향함을기다리라 흥년이 읊々유々할다름이러라

경사에 이르러 점에 쉬일지 강녕과 흥년에 성각이 영결우중하야 전소위욕망이 난망
이요 불사이자사로다 월사일갑조에 글제를 남문우에 부쳐스니 사방다사구름갓치 모
여 각자 장원낭이라 하니 한신이 티장봉할새와 방불하더라 글제난 (定太陽出入) 텡
티양출입 (賦) 부라하야 난지라 성이 양관경에 즉시 자작자필하야 선련에 바치여 세
수니 그 부에 운

澤火著其曆象

君子以而推察

分陰陽於闔闢

攷旬翔於蓂莢

日之行也有道

詔曰羲和出入

推天機之轉環

定陽精之躔度

象天垂而仰觀

撫四時而順序

推三百之甲乙

티화저기역상하니

군조이리추찰이라

문음양어합벽하교

교순상어명형이라

일지형야유도하니

도회화왈출입이라

추던괴지전환하교

종양정지존도로다

던수상이앙관하니

무사시이순서로다

츄삼빅지갑을하교

叶十二之斗建

續裁成而輔相

庶五紀之不愆

顧太陽之攸行

則有冬而有夏

道惟分於赤黃

谷亦有此陽昧

班晦明於晝夜

判遲速於分至

機无停於幹旋

理不差於循回

旣往來之无間

貴纏道之先叶

扶桑曜而秩東

若木晦而寅西

運一氣於四時

협십이지두근이라

빈지성이보상에난

쇠오괴지불건가

고티양지유형하니

즉유용이유하로다

도유분어겨황하교

곡역유차양미로다

반회명어듀야하교

관지속어분지로다

괴무정어간선하교

리불차어순회로다

괴왕리지무간에난

퀴진도지선형이라

부상요이절동하교

양목회이인서로다

운일괴어사시하니

春與秋其迭代
騰朝暉於先甲
饒夕照於後庚
行南陸而晝永
宅西方而霄中
宜治曆而叶正
盍隨序而成歲
占啓閉於震兌
秩明幽於巽乾
矯出東而入西
各隨位而正度
諒天工之秩成
亦人時之敬授
揜修短而順布
吹衆務之趨時
遂爲之歌曰

훈여추기질덕로다
풍요휘어선갑하고
존석조어후경이라
힝남육이듀영하고
덕서방이쇼중이라
의치역이협정후고
합슈서이성세리오
점계폐어진덕하고
질명유어손건이라
교출동이입서에난
각슈위이정도로다
양던공지질성하고
억인시지경수로다
변수단이술포하니
취중무시진시로다
슈위지가왈

日出	自東	朝暉	斜暉	俄兔	乍溫	允升	倏沒	出虎	莊狗	或艮	于巽	東西南	出納
入西	自西	入庚	入庚	俄雞	乍涼	于甲	于辛	之方	之地	或坤	于乾	北	己
十二月	十二月	正九月	正九月	二八月	二八月	三七	三七	四月	四月	子午	子午	時月	兮
일출	자동	요감	사휘	사아	온로	윤승	홀물	출호	장구	흑간	우손	동서	출남
일출	자동	출입	입출	아아	로아	우우	후후	지지	지방	흑곤	우건	남북	이북
입심	심이	정구	정구	리팔	리팔	갑심	심철	월월	사육	오월	오월	시월	월해

황제 친이의 고상시니 만과 중제 일이라 자비점커스관유라의 조상사임시하라하시
니 하신이곳들어가계하에부복하되상이친이보시미얼골은관옥갓고썸은준도화라
눈썹은죽엽갓트며봉안용요의홍금이왜탁하고외관이중제하니인중호걸이요일색

문장이라던 안의 디 회 사 어 주 삼 비를 사 하 시 고 곳 양 주 목 사 를 제 수 하 시 니 성 이 일 조
 에 영 화 지 극 한 지 라 이 예 사 은 속 비 이 되 하 야 고 향 으로 도 라 을 식 으 사 화 는 훈 풍 을 싸 라
 나 빗 기 고 려 사 의 난 립 일 에 비 처 여 날 니 고 전 후 로 호 위 하 난 나 졸 은 권 마 성 을 불 르 며 좌
 우로 음 악 이 제 주 하 니 봉 의 용 잠 이 라 진 실 로 셔 실 계 고 훈 심 을 알 러 라 향 주 성 과 용 금 문
 이며 셔 옥 등 에 처 운 이 을 밀 하 고 식 회 장 정 하 니 목 사 에 부 모 와 악 부 모 엇 지 희 려 처 아 니
 리 요 또 하 강 낭 과 흥 년 이 듀 소 로 축 도 하 다 가 금 일 을 당 하 야 그 겁 부 면 불 기 자 지 러 라 목
 사 스 일 주 류 하 며 사 당 선 령 에 비 성 하 고 부 모 매 하 직 하 고 강 낭 과 흥 년 으 로 한 가 지 양 듀
 로 님 여 갈 셔 승 학 하 양 듀 난 옛 날 썬 이 아 니 로 다 오 른 일 만 에 도 임 하 니 영 접 그 동 이 심 히
 가 치 하 더 라 목 사 의 민 사 궁 하 며 도 민 오 른 하 야 농 상 으 로 권 하 고 학 교 를 흥 기 하 니 일 년
 지 님 에 백 성 이 각 각 그 바 를 엇 어 그 도 를 일 치 아 니 하 고 질 기 여 노 리 하 니 노 리 에 왈 ○ 발
 히 에 히 가 주 리 고 도 적 이 이 러 나 미 여 쇼 경 이 처 지 하 고 차 공 이 영 천 티 수 가 되 오 미 여 난
 조 가 지 하 고 황 충 이 살 아 졌 도 다 왈 아 양 주 혜 여 덕 기 상 양 하 며 희 불 상 파 하 고 풍 불 명 조
 하 니 정 처 가 청 평 하 며 비 실 이 죽 하 니 시 수 지 역 고 상 텨 에 공 이 로 다 자 못 상 텨 에 공 이 아
 니 로 다 텨 즈 에 공 이 로 다 자 못 텨 즈 에 덕 이 아 니 라 우 리 티 수 에 다 사 리 미 로 다 티 수 지 손
 이 여 쇼 부 두 모 와 갓 도 다 왈 아 하 부 강 모 여 하 날 이 주 신 바 로 다 하 더 라 일 々 은 한 풍 이 소
 실 하 고 립 설 이 분 々 한 티 강 낭 이 고 향 부 모 의 모 양 하 난 성 각 이 간 절 하 야 반 빙 옥 난 하 야

잠 산 조 으 더 니 일 진 광 풍 이 디 작 하 며 텨 지 혼 몽 하 더 니 한 선 관 이 학 을 타 고 셔 환 우 를
 소 청 하 니 일 월 이 명 낭 하 지 라 이 예 낭 더 러 왈 불 원 간 의 유 흥 유 길 하 리 니 부 티 조 심 하 고
 상 갈 지 어 다 하 며 인 을 불 견 이 라 놀 니 이 러 나 니 씀 이 라 님 심 에 의 아 하 더 니 제 셔 을 당 하
 지 라 고 향 성 각 이 비 나 타 시 에 더 하 야 중 히 수 을 하 던 차 목 이 님 실 로 들 어 와 낭 을 보 고 왈
 님 국 록 이 중 하 디 이 제 양 년 이 지 난 지 라 보 일 지 즈 가 읍 씨 니 심 중 에 황 송 한 지 라 명 일 중
 셔 에 맛 당 이 조 하 할 지 라 디 지 천 리 지 와 하 고 굴 다 사 요 하 니 역 무 님 하 라 맛 당 이 글 로 써
 하 례 홀 가 하 나 학 성 이 문 단 하 와 하 을 바 를 아 지 못 하 니 낭 은 셔 호 를 악 기 지 말 고 증 조 잔
 일 편 을 지 으 미 엇 더 하 노 낭 이 고 사 지 삼 에 곳 북 을 날 니 여 목 을 주 니 목 이 바 다 보 고 디 회
 하 야 그 이 일 중 조 에 목 욕 지 비 하 고 봉 상 하 니 황 제 남 필 에 비 관 을 모 와 하 문 하 사 왈 양 주
 목 하 신 은 진 소 위 텨 문 장 이 로 다 하 시 며 증 조 잔 일 편 을 니 리 시 니 만 조 비 관 이 기 시 충
 찬 하 되 홀 로 병 부 상 셔 리 관 원 과 좌 승 상 남 관 목 이 불 열 하 더 라 황 제 즉 시 금 립 수 비 필 을
 사 하 시 고 녹 심 비 를 더 하 시 니 자 차 로 목 에 문 장 이 님 외 에 진 동 하 며 그 시 를 엮 우 지 안 이
 하 난 지 읍 더 라 목 사 텨 은 을 비 사 하 고 곳 낭 을 청 하 야 왈 낭 은 참 천 재 로 다 하 며 금 립 국 녹
 이 도 시 낭 에 심 이 라 감 격 불 리 로 다 낭 이 고 사 하 기 를 또 한 마 지 아 니 하 더 라 어 연 간 모 주
 을 당 훈 지 라 황 도 니 리 사 십 일 님 로 곳 입 시 하 라 하 시 엇 거 늘 목 이 비 조 하 고 황 々 망 조 하
 야 곳 낭 과 다 못 흥 년 을 보 고 제 사 를 부 탁 하 고 등 정 하 니 낭 과 년 이 목 을 오리 밧 게 보 니 고

도라와 심불안정하야 식불감미하며 침불안셔하더라 월오일에 석옥동서간이왔거날
리택하야 보니 그부친에 필격이 분명하니라 하엿씨되

한지라 연조는 심구하교잉아는 촌교하난디네에 외당정치가 무지되신하며네에
거음식이 또 엿더무탈하며 또 한홍년도 잘잇셔무고한야원의듯기를 바라가이저호
로써다하지못하노라 (오) 논고노차병하미완전재침이라 만염이도 회하고 친척
이성산이라 부녀각々원방에잇서회합하기가 괴악이읍씨니 우탄흔들엇지하고노
병이점々집과탕약이 무효하니 생각센디 불부양춘이라 원컨디 현와난인고외청하
고비연이니 사하야네에애비가난디다스른즉사지무한이라 북침신음하야바라노
라 또네에모친은네에병음의인연하야식음이 불편하미이시고스할다름이라

년월일부병필누셔하노라

남이보고통곡하기를마지아니하야왈너조유형이비록원부모형제라하여씨나구노
지는과양획지의를감히촌보치못하얏고또한노부가방금병석에잇서지극기위되한
지라오라하섯난디남군이잇지아니하니차장되하오하며누우가방々하야의상을적
시니그비참한그동은참아보지못할지라홍년이읍고왈원컨디남은심신을증하사속
수형장하소서년이여기잇서목사에도라오심을기달나리니남은조금도염여치마시

압소서남이충찬하며눈물을거두어등정하야육칠일후에석옥동에도착하니부옹이
병석에잇서심중막디여날복지읍고왈불조녀이제야왔나이다북망부옹은눈을들어
보소서강옹이충필에눈을흘니여보고왈과연지극하도다니여식이여참일으렷너나
하교남에손을잡고왈너년금칠십이라사지무한이연만다만실하에무남하교너여식
하나뿐이라디형이현셔를엇더부키영화가타인에지나니심히기분일이라연이나죽
은후에네가집의잇서삼년상을지니고이즈를두거든일조는네에후사를잇게하야라
만약그러치아니하즉나는지하의도라간들슴천막디에죄를면치못할지라하며드드
여진하니부인과남이의동하기를마지아니하며일변황주성에괴별하니목사부조병
일이니하야초종범절을다예를일치아니하교택일하야석옥동안산에안장한후남이
우러々강옹임종시유언을목사부자전에고하니목사부조왈사당기연이라맛당이
하리니안심할지어다만약일조를두어도병승형사하리니염예말지어다등씨부인과
강남이희심이과망하야외동중일지희심이싱기엿더라이에목이황주소식을물어왈
홍년은웃지하얏난요남이전후말을일々이교하니목이충찬왈참년에홍년이로다니
일죽그마암을알어낸니와이갓치단심잇슴은미상촌야로다하더라목사부친은항쥬
로도라가고목과남은동야하야담론이미々하더니잇씨의사절을가지고왔거날목이
황々입조할시남으로더부러이별하기를웃지못하얏더라입조부복하디황제왈집득

천하이리로네에문장을보니거에흥학홀듯흔지라금춘에재를침궁전에지엿씨니명
은경현이라경지의난유경유일지의니녀난잠을지여을닐지어다즉시정필치말고씨
라하신타목이복지비사하고필하류하야묵형여운으로곳씨셔을이니상이남필에
셔상을밀치고용상을쳐왈하신에문장은작고형금에상수를어덧다하하고곳한립
하스를제수하하시니신이복지사은하니라하스글을황주에부치여흥년을곳상경하라
하니잇썩흥년이수심으로지니더니황성서간을바다보고희식이만면하야곳하기를
다사려등정하고신관이발서도임하더라형노수일에유막에이르러쉬일치야심숨경
에월낙숨황하고인적이적요한디불여커숨허우니참아취수치못하더니썩막게도겨
이성군작당하야이웃집에들엇난디화광이충천하고무리소래산악을움지기는지라
흥년이급히이러나창을열고담을너머후원으로도망할시발셔도적이지재물과형장을
탈취하고자로썩쳐오며저기가는년아거기잇거라하느소리청천에벽력이두상에씨
러지난듯황하급하야다라나수심보에엇지홀줄모더니적당이와셔억난지년에
섬하흔약질로일선에날기읍씨니웃지하리요하릴읍시잡피여간비되엿더니평명에
디혈에다다러석문을열고들어가난지라년이가만이싱각하니숨푸다닉일신이차혈
중의아주죽엇도다목과낭을평성에다시보지못하고영하히리별하니가련하도다하
며누수가부절한디계하에깨좌하여정신을진정치못하더니호령이엄숙흔지라눈을

들어잠판보니누디궁궐이다화치한디시위나졸이도국분표하며괴치창검이디정아
리에나렬하얏난디존상을바라보니옥척염을걸고발안에황나장을베푸러난디수두
라하난재머리에숨산관을씨고몸에난담황표를입엇고옥디를씨고신안에경거하야
씨니죽난재수빅여인이라각집병괴하고좌우로나열하니심히엄숙흔지라상모난다
하구에유라그사커스지알고더욱비참하더니한군스십이척사두창을집고왈우리디
왕은유현국왕이시라아왕유거월에흥하엿습더니이제너에안식을보니참경국지식
이라더욱년치가되소하니천우신조하심이라아등이불원천리하고너를다리고와씨
니원컨디응종치아니홀소나불공하난사난스두창흔을면치못하리라흥년이니심스
지하미스이지차에진퇴유곡이라이에작언왈세의존첩이외람히선경에들어와존령
을축몽하오디하물며더럽다아니하시고이갓치관유하시니웃지쫓지아니하리잇가
군스디희하야스실로썩왕에게고하디유현왕이썩하디열하야즉일디연을비설하고
음악을아리우고주효를진미하니의여인간이라도시도취함이라일난연파하디흥
년을후궁청결소쇄하고찰난화치한궁으로인도하고시비로하야금시위하게하니흥
년이당상에안지미심스만천이라묘책을베풀수읍고다만스스로충음창탄홀싸름이
라시비가이리동을보고왈존후난웃지이갓치비감하나이사년이천연디알이제너가
다형으로유현후가되미부커할이즉지아니한지라다만인간에기신부모제셔일즉이

아시지못하시니 일로써 숨피하노라 시비듯고 서루보고 깃버하야 차후로 난조금도 괴
망치야니 하더라 밤이 이에 오경이라 등축은 경々하고 성하는은々하되 학이 울고 잔느
비눈을 하미 월식은 비참한지라 심스더욱 증하지 못하야 인하여 죽고자하다가 다시 성
각하미 실로 청춘이 불상한지라 목스에스랑하고 총의하던마암을 생각하니 일시가 민
망하고 녀조출세하미 절기제일이라 아무리 팔자가 과박하야이 지경이 되엇시느심명
을 도라보와 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청련일월이 명랑하니 웃지무심할가 죽기로 작정하
고 출문비회하야 양관청천하고 길이란식하던니 홀지에 석옥동에 당도하미 강옹이 동
구에 쇼요하다가 보고 급히와서 손을 잡고와 흥년아니 말을 지어다잠시간 신익이 불
길하야 유현국티익을 당하야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천리에 맛당치아니 한지라 부디 안심하
고 지닐즉 수월이지니 지못하야 출혈할날이 잇시리니는 지금 유명이 달으느웃지신명
이 읊스리요니 말을 무신이듯지 말너 부디 안심하야 잇시라 하매 눈물이 만면하야
체읍하야 매 등곡성이 되발하야 일신이 진동한지라 놀니쳐니 일장춘몽이라 암々이성
각하니 몽조비범하야 강류별세하심을 짐작할너라 생각다 못하야 강옹에 몽중하교를
직하고자하야 만약스불여의호죽그시츠치고자하교 졸디에 알는소리를 하며 밤중
에야 단을 치니 시비 놀리어 그곡절을 물으니 대답은 읊고 고기만 해々 두루며 알는소리

만하니 보기에 심히 황공한지라 전신을 만디며 일변 유현왕에게 고하니 유현왕이 듣고
되겁하야 등축을 밝히고느 졸수심인을 다리고 들어오는지라 흥년이 자못 등성을 아
하교 언어를 심히 정숙케하교 용모를 화려케하야 조금도 병색이 읊시령접하니 유현
왕이 곡절을 아지모하교 희색이 되발하야 흥년을 보다가 시비를 되척하기를 마디아니
하니 시비 황공무디하야이 실죽고하느엇디 증거가 잇시리요 왕이 더욱더로 하야 못죽
이라 홀차에 흥년이 우습을 짓고 말니 여왕저거시디 각이 읊고이 갖차야 밤중에 되왕을
노촉하얏스오니 죄스무척이오느소첩이다 큰병은 읊고다 만인간으로 브터간질이 잇
셔 졸디에 발하매 불고인스홀췌외라 스시에 춘하절을 당하면 더심하교 성냥이 되고 추
동을 당하면 무병하다하며 잉가연어로 달니니 왕이 분함을 쉬우고자 못흥년에 병을 연
에하느척디 자색을 보미자 연불가튼 용심이 되발하야 운우지락을 이루고 사하니 흥년
이 더욱아당하야 감언이 설로 왕에오장을 독이다가 홀디에 방중의 잡바저스디를 요동
하며 간질을 시작하니 되경하야 시비에 교합을의심치아니하교 선약으로 구원하니 곳
회성하난지라 왕이 자차로 생각은잇스느그 병을 겁하야여의치 못하교 간々이 수작이
비상하면이 갖차하니 어리석은거시추절오기 만기다리고 서々씩々로 선약을 먹으며
고량진미로 구하니 증병하난 줄은 쪽금도의 심치아니하더라 흥년은 오장육보에 첩々
히잇는수한이 거々이심오로 일각이여습츄라아무리 조흔약과유미호음식을 먹으느

형용이 화려하며 신상이 편할쇼냐점々과리하고 말는양역키는봉두위석이무단이공
중에소슴과갓고양협자색의작々호준색은간대읍고다만소슬한풍에백설이분々하
야만물이소조흔대무디고목이설중에백김과갓튼니아무가보와도큰병이읍다구하
지는못할너라임엄한세월리어언간달이지는매견화는락진하고방초는쳐々하야금
수를노은듯하고록음이과스하야청々울々하야화초병을들넌듯홍년이비심이강
가일층이라출문독보하야한림과강낭을싱각함의의연이대마와갓튼지라장일々이
구회하고안습시이욕촌이러니서흔쌍이날어와상두에안저홍년을보고외인괴물하
는리도가읍는듯한지라홍년이슴품을억제하고즈세히보니곳청조일쌍이라싱각하
매이서는석옥동에잇는청존가혹시타려에도청조가또흔잇는가이상도하며피이도
하다만약석옥동에잇는청조면웃쌍하야이혈중에왔는노를아자못한단말인가하
니청조일쌍이천연히년에웃우에안즈며무어라구지저키는듯흔지라홍년이손으로
날기를씨다드무며일니월내가분명석옥동으로셔참왔단말이나하며탄식하기를마
지아니하니청조요미락구하야대답하는듯홍년이그제야청조를안생동곡왈너는날
기가잇스니능이차혈중에왔거니와는슴푸도다날기읍시만장혈중에들어왔씨니
웃지하면다시인근에가볼가는는장차여기셔죽을지라너는는를위하야글을학스와
강낭에게전하야주미엇다하노하며곳붓설잡어씨니누우비々하야즈불성형이라셔

필에홍스로글을청조다리에매고일너왈너는일겨출혈하야전하야주기를망々기々
로라한대청조역시비々히작별하고벽공에소사탁운을헤치고날는가기를표연이하
니홍년이우입망조비거라가인하야쌍에거구려저흔절흔지라시비막그로붓터들어
오다가본즉후가쌍에거구려저죽어거늘흔비백산하야급히손을잡고목을람야본즉
아죽죽지난아니한모양이라급히왕에게고하니왕이약슈로구완흔대슈경후회싱
한지라그연고를물으니홍년이대왈신병이지금도났씨아니하고더욱심하야경도흔
다하니왕이듯고더욱근심하기를마지아니하더라잇씨한림학시글을양주에부치고
날로기다리더니홍년은아니오고동편에들으매홍년이발정하야모일모점에서유숙
하다가도적을만는잡히여갓드하야날의심이강가일층하야스름을보덕여담문하되
과연적실분명하는그중적을아지못할지라스유로나라에상달하니황제또한외아하
사도셔를너리시와사방에심문하어도성사를알수읍난지라학사와강낭과등씨부인
이듀소로근심하야세일을보덕더니일々은학사등씨부인을보고홍년에일을말습하
야차탄하기를마지아니하니강낭이역시유체하야슴인이누수를씩리여의상을적시
다가석양이되미학사경사로도라가라할차의문득청조일쌍이동양우에안저발을흔
들어무어슬셀어트리고자하거날낭이즈세히보니엇더한셔간이다리에미여거날글
을풀어학사와부인전의노코보니이에홍년에필적이완연한지라그셔간에하엇시되

사람에 일성이 일세에서 나와 갔으니 춘풍 화구에 초목이 빙동함은 동년에 활발하음이
 이요 하우시행하고 초목이 창무함은 장년에 발달하음이 요경 추성실하고 역동이 조
 즉 장한 겹로써 높고 늙은 겹로써 쇠하음이라 연이나 동지 춘리는 순한 불리어 든 인 지
 년 화 난 일거 불 반하야 노제가 다시 장하지 못하고 장제가 다시 좀지 못하야 나 옛말에 하
 여 씨 되시호々々 부지리라 하거 날 물며 늙지도 아니하고 요사 하난 지리요 지어 차
 하야는 그 늙음과 가련하음이 더욱 간절하온 지라 오호익지라 춘한 흥년에 신세여 부
 으르 써다 상달치 못하겠나이다 츄음에 화원귀루지유에 한림이 더럽다 아니하고 시고
 인 하야 총익하시오니 마암에 파망하옵고 갖치양 주로너리여가사 화도 월석의 상천
 상근하시와 고지금실하고 락지이 산수하옵더니 또 한림이 묘셔를 밧들어련문에
 오르사 신입학사하시고 일흥이련하에 진동하시며 글을너리사 첩을 부르시니년에
 마암과 뜻에 희열하음이 극진하옵더니 흥진비리는 자연한이 치라 늙푸도 다 흥년에
 박복촌덕하온년이여 웃지바라 건디영귀종신하야 현인 군자를 뵈시릿가 조물이 시
 괴하고 산천이 마시하사 등정하야 모일모점에 이르러자 압더니야 심슴경의 녹림수
 십이 풍구운치하야 거화위성하고 박인위역이라 년이 답을넘어다라나 미수보를 못
 가그 열망에 잠핀바 되오미세 궁역진하고야 심산중하니 무가너하라 인하여 잡피여
 티혈중에 들어가니 혈명은 유현이라 그도적은 다 하구에 유요인물은 아니라 신장이

물구척이 요형용이요 마한지라 표박이 자심하야 유현왕에 첩을 숨겨 날미씨에 락정
 함과 왕모에 복금함을 번밧지 못하옵고 잔명을 부지하미 등전일하에 오익년 환희원
 가를 맛나고 세상 인간에 천만 풍유를 지의오니 왈죄 왈송은 티산이 높고 황하가 깊도
 다 연이나 일편단심이야 웃지용이 허변환하오리가 장차나가고자하오나 몸에 날리
 읍시니 웃지가이 날며 땅은 고래를 일어 씨니 웃지으더리요 식가 괴물의 들고 범
 이 합정에 빠져 씨니 흥년을 두고 일은 바로 다다만 한하오 건디련음 우습지야와 일락
 숨회지신에 음취제신이 동양에 쇠파탐하야 소리가 잇고 집을 엿보되그 형용을 보지
 못하오니 도차인성이 일순을 난지보다이 웃지할고 땅은 유혈이라 이르고 혈은 만장
 이 겁피 씨니 인간이 하세 오식불감미하고 침불안식하오니 평성원한이 입차이후로
 잔명을 고할곳이 읍더니 천만의 외에 일쌍 청조가 비연되사하야 년을 위하여 글을부
 치오와 사실을 상달하오니 죽은누무어슬한하오릿가 누필혈저의다 만수운원이가
 병작하야아 퇴을바를아지 못하오미 춘심천리의 철흔이여상하니 제망감언하소서
 남필에 숨인이 글을보고 서루올다가 강낭이 고왈웃지한죽흥년을너오릿가 흥년을살
 니오릿가 원컨디 학사는 희게하소서 학사 양구에 왈나는 또 한웃지한단말이요이 사실
 로써 황상제 주달하와그요마를제하고 창성을편이안돈하며 흥년을너오리라하고 곳
 글을가지고 경사로도로와 입조 주달하오니 황제크게 근심하사 백관을모되우시고의

론을 너리사각언그심하라호시니혹은치자호며혹은치지아니호자하야의론이분류
 혼자황상알엿적하우시난솟철플무하사신간커비가그형용을도망하지아니치못하
 고은피는물소를티우어슈부용궁에그형상을보와씨니짐이성각전디유명에알취는
 못케피한디다위함이라만나난제이롭지못호고도처에히가죽지아니한지라디지디
 여가입경하야거날조정에한사람도엿적진경과갓치오시를죽이여구련십제에이디
 망양과야차나찰을배여그간확함을용납지못호나노하물며청평한세게에이갓치간
 마가형용을변환호야픽성을잡어관다지물을탈취호여가되일지기제여치못호야민
 간에처화죽지아니한라지늑가능히쳐멸호고인민을늑고천금상에만호를쥬리라
 하신디알인이출반쥬알소신이비록지조읍사오나군사오천과당사오천티를쥬시오
 면유현디여를소멸호고갓천사람을늑오리이다호니그사람은누구인고병부상셔리
 관원에아우관수러라그사람되음이호합양사호야호살호벌호며약간용역이잇셔자
 총용명호고독알무이호난재라황제디회호사군사오천과당사오천티를쥬어보니
 라관수군사를거나리고형호며민간에합지호미그도적이천악산으로출입한다호거
 날관슈천악산에이르러산록을편답하죽봉만은치아호고슈목은을비호디한곳에당
 도한죽셔문이잇난지라관수군사로히야금셔문을쳐파호라호나웃지파할소나파하
 지난못호고오천군으로한가지병역호야셔문을게우열고들어가보니디철이집피천

장만장이되는지아지못할지라큰동우리를민들여군사를티우워혈중에너리여보너
 고관수천이들어가슈일후의하육호야눈을드러보니일일이명낭호고산천이수려한
 디옥야양천이광활호고로회각이절비한지라점々들이가유현왕잇는곳절차절셔
 한곳에당도호야본죽궁궐이웅장호고슈목이승하니유현국도가분명한디유현왕이
 맛참군사를거나리고인간에나아가적도라오지아니호지라다만문직킨는군사슴사
 벽이라관수소과에무불잔멸호며탐재호식호야노략호니포학함이유현사마에지나
 지아니호더라가만이음습호야치기를심히급히호니비슈졸슴사벽이병괴를가지고
 디적호나과불적중이요소불승디라우졸이피호니명병이승성죽부호야엄살호니시
 사편야호고혈유성천이라유현국비성죽은재이천철벽여인이요상한재부지기슈려
 라관수곳유현도에들이가인간에잡피여온스름은도라보치도아니호고보피금옥만
 탐호는지라잇썩호년이심궁중에쳐호여명병이들어온다함을듯고희불자승호야유
 피명승호기를쥬야로죽수호더니급기승호야는사오일이지나되종무소식이라일々
 은호년이암출복지호야명군중에당도호야관수를보고왈장군이디명황제에조셔를
 밧자와심혈중에무사득달호시오미사마를도벌호시고중인에잔명을구완호시니감
 사무지로소이다소첩은명국전양주복사금한림학사하신에접이함디니모일도점에
 셔이도적에게잡피여온바되와금일까지잔명을부지호옵고잇사함디니이제천우신